

# 조경, 왓츠 유어 네임?



한국조경학회 월간 웨비나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다시, 조경의 이름을 묻는다 **배정한**  
잘 모르는 사람 M과의 대화 **박승진**  
우리의 '造景'과 그들의 '조경'은 다르다 **최정민**  
'조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김정윤**  
내 이름은 알렉산더 라인하르트 폰 로엠그람 더 매그너스 **김영민**  
건축의 경계에서 조경을 묻다 **김정은**  
조경이라는 이름의 학과 업의 이인삼각 경기 **이유직**

zoom

<https://us02web.zoom.us/j/86784917006?pwd=MHIxdW5KcERkOWYyWThOd3FobkJSZz09>

## 다시, 조경의 이름을 묻는다

### 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환경과조경」 편집주간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광고호수공원, 용산공원 등 대규모 국제 조경설계 공모 운영과 진행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공모전 결과와 당선작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보도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유독 ‘조경’이나 ‘조경가’는 다른 용어로 고쳐 표기하곤 했다. 이를테면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조경가 아드리안 회저(Adriaan Geuze)의 작품이 용산공원의 미래를 그릴 설계안으로 당선되었다”는 문장에서 ‘조경가’는 예외 없이 다른 단어로 수정되었다. 조경전문가, 조경디자이너, 조경건축가는 그나마 조경을 남겨준 몇 안 되는 경우다. 거의 모든 언론이 아드리안 회저의 직명을 공원전문가, 공원설계가, 공원디자이너, 도시공원계획가 등으로 바꿔 적었다. 기자들과 편집자들이 조경에 무지한 탓이라고 분노할, 조경의 사회적 인식이 아직 이 정도라고 낙담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경(가)로는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판단해 머리를 쥐어짜 새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이미 익숙해서 둔감해졌지만, 여러 지자체의 조경 담당 부서명들은 조경이라는 이름의 난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조경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은 푸른도시국이다. 이 낭만적인 이름을 단 부서 밑에 공원조성과, 공원녹지정책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그리고 ‘조경과’가 있다. 조경과의 담당 업무를 찾아보면 수목 식재 사후 관리, 시설물 관리, 가로수와 녹지대, 가로변 꽃 가꾸기 정도다. ‘한국조경현장’(2013)이 정의하듯 조경이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설계·조성·관리하는 문화적 행위”라면, 푸른도시국은 ‘조경국’이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조경계 안에서만 유통된다.

대학에서 조경 교육이 시작된 1973년에도, 내가 조경학과에 입학한 1987년에도, 다시 35년이 지난 2022년에도 조경은 조경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애증의 이름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공이 조경이라고 말하면 대개는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반응한다. “아, 나무랑 꽃 심고 정원 만드는 거죠? 나무 많이 아시겠어요. 참 부러워요.” 당대의 지성을 이끄는 어느 철학과 교수가 내 방에 불쑥 방문한 적이 있다. “처가에 땅이 좀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심으면 유망할까요?” 한국조경학회 이름으로 용산공원 일을 맡아 진행할 때마다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를 동반한 질문을 받곤 한다. “조경학회가 이런 복합적인 도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막상 대답이 궁하다. 한국조경현장의 정의를 암송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뇨, 조경은 나무 심고 돌 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도 설계하고 단지도 계획하고 도시경관의 큰 골격도 짜고 그래요.” 영어 단어를 조금 섞어 써도 재수 없어 하지 않거나 불편해 하지 않는 상대라면, “조경,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예요”라고 덧붙인다. 그러면 내 기분은 좋지 않지만 상대의 반응은 좀 낫다. 뭔가 알아듣는 표정을 지을 때가 많다.

그런데 조경에 해당하는 영어가 랜스케이프 아키텍처일까? 그렇지 않다. 조경이 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아니라, 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조경이다. 이 번역어 조경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제도권 조경(학)의 창설자들은 미국식 개념 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수입해 고심 끝에 조경이라는 말로 옮겼다. 하지만 이 전문 분야의 역할과 가치는 새로웠던 데 반해, 분야 명칭으로 선택된 조경은 이미 다른 뜻으로 통용되던 말이었다. 1920년 이후 일간지 원문을 제공해주는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 보면 1962년부터 조경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한다. 랜스케이프 아키텍처와 관계없이 1960년대에 쓰인 조경이라는 말의 뜻, 말할 필요도 없다. 나무와 꽃 심고 돌 놓는 것, 관상수 재배, 가드닝 정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상 언어에서 조경은 바로 그 조경이다. 조경을 하나의 학제(discipline)이자 전문 직능(profession)인 출발어 랜스케이프 아키텍처의 도착어로 삼기에는 조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미 사회적으로 굳어져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제도권 조경은 늘 묵놓아 소리치며 조경은 그게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강변하고 주장해왔지만, 조경은 결국 조경이다. 조경은 조경이라는 말에 갇힌 셈이다. 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로 선택된 조경(造景). 나는 이 단어의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가 어긋나는 현상이 한국 조경의 50년 역사를 뒤엎기엔 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한국 조경(학) 50주년을 맞은 2022년, 한국 조경의 다음 50년을 설계하는 첫걸음으로 애증이 교차하는 이름 ‘조경’에 대한 긴 호흡의 연구와 토론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공감과 우려가 공존할 것이다. 반세기 지켜온 이름을 이제 와 버릴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경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공감은 하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다시 번역한다면 결국 대만처럼 경관건축(景觀建築)인가. 중국처럼 원림건축(園林建築)으로 옮길 이유는 없다. 일본의 조원(造園)은 조경보다 협소한 느낌이다. 일부 건축가나 조경가처럼 ‘조경건축’이라고 쓰는 방법도 있다. 로사이의 박승진 소장이나 오피스 박김의 박윤진 소장은 고심 끝에 명함에 ‘조경건축가’를 넣자 적어도 ‘인식’ 면에서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걸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나 건축에 치이는 다수 조경인들은 건축이라는 두 글자에 바로 공분하며 경관‘건축’이나 조경‘건축’에 강하게 반발할 게 분명하다.

이미 몇몇 대학의 학과명에서 볼 수 있듯 조경 앞에 환경이나 생태나 도시를 덧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건 조경보다 더 웅색하다. 스마트 도시, 그린 인프라 같은 유행어를 섞어보는 의견도 있을 텐데, 그건 10년도 못 갈 궁여지책,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출발어를 도착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참에 조경도, 랜스케이프 아키텍처도 넘어 업역을 넓혀야 한다고, 그런 확장을 만방에 선언할 새 이름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땅 넓히고 싶다 고백한다고 그런 땅이 우리에게 그냥 다가올까. 여러 쟁점이 뒤얽힌 어려운 문제지만, 우선은 정확한 진단과 다각적 토론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한다.\*

\* 이 글의 많은 부분은 2021년 6월,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의 칼럼 시리즈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 보론: 조경,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인가?

월간 『환경과조경』은 2019년에 ‘이달의 질문’ 지면을 꾸린 적이 있다. 그해 12월의 질문 ‘조경,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인가?’에 보내온 독자들의 답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몇 가지 답을 조금 줄여서 아래에 붙인다.

“얼마 전 지인들과의 독서 모임에서 ‘번역’의 문제를 다룬 책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이 질문 역시 어쩌면 번역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경(造景)’이라는 한자어는 언제부터 이렇게 번역되어 쓰였을까. 요즘 정원, 가드닝이 뜨면서 조경이라는 말과 뒤섞여 사용되다 보니 그 뜻이 더욱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다. 덩달아 조경가, 조경설계 같은 말들로도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 제법 긴 설명이 필요하다. 명함이나 프로필에 ‘조경건축가’라고 쓴 적이 있다. 딱히 정확한 표현이 아닐지라도 무슨 일을 하시냐는 질문은 좀 뜸해졌다. 번역의 문제인지 용례의 문제인지, 아무튼 이 질문은 현재진행형이다.” (박승진, 디자인 스튜디오 로사이 소장)

“영국 사례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국조경협회에 상응하는 영국의 단체명은 ‘Landscape Institute’다. 학과 단위로 독립된 조경학과는 셰필드 대학이 유일한데, 학과명은 ‘Department of Landscape’다. 모두 우리의 조경협회, 조경학과와 동일한 의미와 범위를 갖는다. 물론 이들이 ‘우리 업역을 명확하게’, ‘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등의 이유로 ‘Architecture’를 더한 ‘Landscape Architecture Institut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결과는 압도적 반대로 무산. 왜일까? 결국 우리 업역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학제간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조경’만 가르치라는 말인가 등이 다수 의견이었다. ‘조경’이 ‘조경가’의 사고와 신념의 범위를 담기에 적어도 그들 생각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듯하다.” (정해준, 계명대 교수)

“조경의 이름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비루했기 때문일 것이며, 조경의 이름이 자랑스럽다면 그것 역시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찬란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경의 이름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고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조경이 스스로의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돌이켜보면 그 이름은 내가 조경의 이름으로 행한 부끄러운 일들과 자랑스러운 일들을 담기에는 충분했다.”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

“조경의 의미를 담는 이름이 부족하기보다 그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닐까?” (조용준, CA 소장)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조경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누군가 그런 것도 박사가 있냐고 되물길래 당황한 기억이 있다. 1970년대 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조경’이라는 말을 가져다 썼고, 이 용어가 더 넓은 범위의 토지, 도시, 경관 디자인을 포함하지는 않으니 완벽한 번역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름이 잘못 지어졌다고 푸념하기엔 한국 조경이 태동한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간 우리 분야의 전문성을 제대로 대중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건 아닐까. 조경이란 말이 현재 근사하게 통용되고 있다면, 과연 ‘조경,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명준, 한경대 교수)

“우리가 아는 ‘조경’은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이름을 쓰지 않는 조경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원 디자이너,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랜드스케이프 건축가, 경관건축가, 경관계획가, 농촌계획가, 가로시설 디자이너, 어린이놀이터 전문가 등이다. 공원 전문가와 공원 디자이너는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 조경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이름 조경이 그가 하는 일을 한정하고 제한하는 상황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조경과 우리가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조경이 같아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공책을 연필로 부르자고 설득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아닐까?” (최정민, 순천대 교수)

“조경이란 단어가 쓰인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의미는 건설의 조경, 훼손된 경관을 꾸미는 분야로 특정 지어졌다. 조경이란 이름으로 생태복원에 참여하려 하면 생물, 생태, 환경공학 분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조경은 생태계 기본 원리에 따르기보다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환경복원 분야에 조경이란 이름으로 참여하면 전문성을 내세우기 곤란하다.” (홍태식, 당시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명명이란 행위는 단순하지 않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저 있기만 할 뿐 인지되지 않았던 대상을 수많은 대상으로부터 선택하고 분리하여 특정한 존재로 불러내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대상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의 정체성을 온전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파악한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적합한 개념어를 찾는 일이 이어져야만 한다. 조경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것은 아마도 이 용어가 지칭하는 행위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 인식은 본래부터 조경이란 용어가 실재하는 행위를 온전히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난 40여 년간 조경이란 분야가 다루는 영역이 확장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건 조경이란 이름이 적합한 명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어쩌면 적절한 이름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경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 인식은 변화의 시작이다. 한국 조경이 곧 50돌을 맞는다.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조경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경이란 명칭의 적절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진환, 그룹한 과장)

“유튜브를 실행한다. ‘조경’을 검색하고, 조회순 정렬을 클릭한다. 가장 위에 위치한 영상의 제목은 ‘최상의 조경! 강원도 횡성군 별장 전원주택 연수원 매매.’ 조회수는 무려 33만이다. 영상은 6분 정도 진행되며, 말없이 5천평 고급 별장의 외부 공간을 살핀다. 뒤로 돌아가 스크롤을 내린다. ‘래미안의 클래스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조경을 홍보하는 여섯 번째 영상과 미국의 건축평론가 세라 윌리엄스 골드헤이건의 책 『공간 혁명』을 소개하는 여덟 번째 영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상 제목에 ‘주택’과 ‘조경’이 함께 놓인다. 전공자가 기대하는 영상은 스크롤을 한참 내려도 찾기 어려운 걸 보니, 유튜브 세계와 전공자의 머릿속 간극은 꽤 넓어 보인다. 이제 질문에 대답해보자. ‘조경’은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름이다. 유튜브 안에서도.” (이형관, 앤더스엔지니어링 차장)

## 더 읽을거리

오휘영, “우리나라 근대 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1)-(2)”, 『환경과조경』 2000년 1월호, 48-51, 2월호, 30-33.

우성백, 『전문 분야로서 조경의 명칭과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우성백·배정환, “조경은 Landscape Architecture인가”,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16, 11-12.

Brian Davis & Thomas Oles, “From Architecture to Landscape: The Case for a New Landscape Science”, *Places*, October 2014, <https://placesjournal.org/article/from-architecture-to-landscape/?cn-reloaded=1>

Charles Waldheim, “건축으로서 경관 Landscape as Architecture”, 찰스 왈드하임 저, 배정환+심지수 역, 『경관이 만드는 도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과 실천』, 9장, 2018, 196-217.

Joseph Disponzio, “Landscape architect(ure): A Brief Account of Orgins”,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4(3), 2014, 192-200.

## 잘 모르는 사람 M과의 대화

### 박승진

디자인스튜디오 loci 대표

M은 수락산 자락에서 가까운 동네에 10년째 살고 있다. 지방 소도시 출신이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쪽 서울에 살았으니, 이제 서울 사람이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했고 사회단체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산도 가깝고 단지에 나무도 많아 산책하기에 좋다고 한다. 그를 둘러싼 '조경'의 흔적은 이것이 다다. 지인 중에 '조경'에 관련된 사람이 없고, 조경을 잘 알지도 못한다. 나도 그를 모른다. 그래서 M은 이 인터뷰에 초대되었다.

### 건축은 구조잡아요

건축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M은 5초쯤 망설이다가 '구조'라는 답을 내놓았다. 의외다. 아마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광주 아파트공사현장 붕괴 사고를 떠올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냐는 물음에는 대뜸 A와 B를 말했다. A는 잘 알려진 건축가이며, 책과 강연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B 역시 그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아는 조경가가 있는지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아닌가요?

M은 내가 조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건축은 그렇고, 그런데 조경은 뭘까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요. 5초가 걸리지 않았다. 나쁜 대답이 아니다. 조경행위의 핵심을 간결하게 설명한 셈이다. 정답에 가까우려면 '유용',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하고 끝맺음에서는 '인문', '과학', '계획', '설계', '예술' 같은 용어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아름답게'는 조경행위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으뜸일 듯. '아름답지 않으면 조경이 아니다'라는 명제도 성립 가능하다. '꾸민다'는 행위도 반드시 장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듯하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연구와 기획, 설계와 시공이 모두 '꾸민다'는 행위에 속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M은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다.

### Landscape Architecture?

처음 들어 보는데, 좀 의외네요. '조경'은 친숙한데 '랜즈케이프 아키텍처'는 심히 낯설다는 M.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선 '랜즈케이프'에는 다정한 느낌이 없어요. 좀 높은 곳에서 어떤 도시를 내려다 보는 느낌이 들어요. '경관'이라고 번역하면, 자연보다는 도시적 풍경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뒤에 아키텍처를 붙여서 생각해 보면, 건축물로 가득한 도시에 대해서 큰 스케일의 어떤 건축적 행위를 하는,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 같은 행

위가 연상돼요. 우리말 '조경'에서 느껴지는 예술적이고, '자연', '식물' 같은 친근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 다 맞는 거예요.

### 정원은 조경인가요?

'조경'이라고 하면 우선 정원적인 스케일의 구체적인 공간이 연상된다고 했다. 서울같이 복잡한 도시에는 반드시 조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아직 멀었다고 했다. 거꾸로 '정원'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단어이며, '정원'을 연상하면 '집', '가족', '행복' 같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한다. '조경'이 연상되지는 않는다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원은 조경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광장도 조경입니다. 아, 네. 가로수 심는 것도 조경입니다. 그렇지요. 산림을 가꾸고, 하천을 살리는 것도 조경입니다. 그래야겠지요.

### 조경가는 예술가?

'조경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가'는 익숙하지만…… '조경가'는 '조경공사'를 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조경가'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기획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좀 포괄적으로 뭔가를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 거의 맞아요. 그러면 '조경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나, 조건(?) 같은 것은 뭘까요? 또 5초쯤 지났고, '예술'적인 재능이 아닐까요,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는 M의 생각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 '조경'은 나쁘지 않다

이후로 몇 가지 질문과 대답들이 더 오갔고, '조경'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교육(?)이 덧붙여졌다. M은 '조경'에 호의적이었고, 만약에 자녀가 조경학과에 진학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지점을 오가기는 했으나, 조경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여겨지고 있었고, 약간의 설명만 보태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했다. 조경에는 많은 세부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조경은 사회(도시)를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다소 철학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

'조경'이 좀 모호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 넓은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살아간다. 조경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이 잘되지 않는다면, 좀 길어지더라도 어떤 작업을 특정할 만한 단어를 조합하는 방법은 어떨까. 조경생태, 조경공학, 조경예술, 조경미학, 조경엔지니어, 조경건축가, 조경계획가, 조경컨설턴트, 조경역사가.

### 조경건축가 박승진입니다

저녁 9시가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순서가 뒤바뀌기는 했으나 양해를 구하고 뒤늦게 명함을 건넸다. 회사 이름이…… 아, 어떻게 읽어요? 로씨? 로사이? 아니구요, 엘오씨 아이입니다. 아, 네, 그냥 편하게 '로사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조경이 뭔지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PS. M은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의문을 던졌다. '조경' 좋은데 왜 바꾸려고 해요?

## 우리의 '造景'과 그들의 '조경'은 다르다

### 최정민

순천대학교 조경학전공 교수, 「한국조경학회지」 편집위원장

###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와 '조경'

50년 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신문물이 이 땅에 들어왔다. 신문물은 현대성(modernity)의 상징이다. 아직도 귓전에 맴도는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는 시대가 지향한 가치를 보여준다. 현대성이 거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듯이, 근대화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의 오랜 역사와 문화는 지워지고 국토와 자연은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분야가 필요했다. 이 신문물을 우리말로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조경'이었다. "경관(景, landscape)을 조성(造, architecture)한다"는 의미이다.<sup>1)</sup> 이보다 더 나은 율김 말이 있을까 싶다. 지금은 익숙하고 친근하다. 그 이름에 신뢰를 보내는 이들도 많다.

### "조경이 뭐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다

조경학과에 다닌다고 하면, "조경이 뭐하는 거냐?"는 질문을 받곤 했다. 질문자는 스스로 답을 찾아보곤 자신 없었는지 되물었다. "고래 잡는 건가?" 지금은 금지된 포경업이 당시엔 인기 업종이었기 때문인지, 포경과 조경의 어감이 비슷해서였는지는 모르겠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조경이 뭐하는 거냐?"고 묻고, 우리는 설명해야 하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시대는 변하고, 조경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조경이 뭐하는 거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농담이거나 자신이 무지에 대한 자백일지다.

### 이젠 "조경이 뭐하는 거냐?"고 묻지 않는다

2021년 가을, 광주 '아시아 예술정원' 설계공모의 한 심사위원은 비장한 표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왜 조경기술사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이죠?" 그는 그 예술정원이 조성될 대상지에 자리한 시립미술관장이었다. 비슷한 일은 많다. "조경이 이런 걸 해요?" 도시재생이나 단지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 조경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음 직하다. 그들은 "조경이 뭐하는 거냐?"고 묻지 않는다. 그들의 조경에 대한 생각은 꽤 확고하다. 우리가 열심히 설명한다고 한들 설득당할 것 같지 않다.

### 우리의 '造景'과 그들의 '조경'이 다르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태동되었다. 그 요구는 바로 공간의 공공성이다. 조경이 정책을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조경 공간의 정책을 다루는 기초

1) 造景이라는 한자는 동사와 명사로 구성된 단어 구조 자체가 예스럽고, 조(造)라는 범용적인 동사가 개성이 없어서 오히려 예술적인 창작보다는 기술적 제작이나 시공에 가깝다고 한다. 김영민, "조경(造景)이라는 말", www.lafent.com 2021. 8. 12.



자치단체는 226개다. 이 가운데 조경을 국(局) 단위로 편제하여 (조경)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한 곳도 없다. 푸른도시국에 조경과(課)가 조직된 특별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과 단위 조직을 갖춘 지자체도 없다. 대부분 조경은 공원녹지과 또는 공원과나 녹지과, 산림환경과 등에 '팀' 단위로 명맥을 유지한다. 정원운영과에 조경팀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조경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조경을 "토지와 경관을 계획·설계·조성·관리하는 문화적 행위"(한국조경현장)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글자 그대로 조경이 경관(景, landscape)을 조성(造, architecture)하는 일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했어도 공원과, 녹지과, 정원과 등은 조경국 내에 두었을 것이다. 우리의 '造景'과 그들의 '조경'이 다른 것이다. 무지성적 행정 난맥이라고 분개하기도 했었다. 왜 이런가?

소쉬르에게 기대어 이해해본다면, 조경이라는 기표(記表, signifiant)와 조경의 기의(記意, signifié)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기표와 기의 사이의 의미작용(意味作用, signification)은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조경의 정의와 사람들이 갖는 조경에 대한 이미지나 의미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 각기 다른 이미지와 의미는 체계(사회) 속에서 필연화된다. 그렇게 필연화된 조경이라는 이름이 조경의 의미와 역할을 한정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 조경은 조경만 해라!

"경관 건축", "조경 건축", "랜드스케이프 건축" 등은 'landscape architecture'의 또 다른 윽긴 말들이다. 그들은 왜 이미 50년 전에 고민한 결과인 조경이라는 말을 외면할까? 그들에게 이미지화된 조경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의 의미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건축물과 결부된 공원 프로젝트는 건축 설계 공모로 발주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어디선가 나타난 놀이전문가는 조경을 맹비난하면서 놀이터는 자기가 디자인해야 한다고 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칸막이 캐치프레이즈처럼, 놀이터는 놀이 전문가에게, 정원은 정원 디자이너에게 맡겨야 한단다. 공원 전문가가 나타난다면 공원은 그에게 맡겨야 할 상황이다. 조경은 조경만 하라고 한다.

### '조경'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의 번역인가?

공식적으로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72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조경디자인 전공이 개설되면서부터이고, 이 용어는 1972년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landscape architecture'를 '조경'이라고 번역하면서 사용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 조경담당비서관이었던 오휘영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윤정섭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고, 윤정섭 교수는 '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으로 '조원'이나 '조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조경'으로 했다는 것이다.<sup>2)</sup> 주목할 만한 점이다.

두 가지 자문 안 가운데 '조원'은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 현대 교육의 틀이 형성된 일제강점기에 사용되면서 필연화되었을 것이다. 조원학 강의는 1945~46년경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개설되었고, 1947~48년경에는 서울대 농과대학 임학과에 개설되었다. 주요 교재는 1966년에 출간된 『조원학』이었다. 저자는<sup>3)</sup> 모두 임학(林學) 전공이었다. 두 번째 대안이자 선택된 용어인 '조경'은 "관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2) 조세환, "한국 조경의 도입", 『한국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전』, 환경조경발전재단 편, 도서출판 조경, 2008, 20-43.

3) 윤국병, 박광철, 김장수, 민경현, 임경빈, 김광래, 임순문, 왕수덕 등.

1958년부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1965년 10월에는 「월예와 조경」이라는 잡지의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1967년 6월 6일 자 매일경제에는 ‘한국조경연구회’에 대한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sup>4)</sup> 조원이나 조경이라는 용어는 1972년 이전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처라는 새로운 전문 분야를 새롭게(생소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 내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의) 용어를 선택하여 대입한 것이다. 새로운 분야가 기존 체계에 순조롭게 정착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분명한 것은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기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한 번 써버린 부대는 딱딱해져서 새 술(포도주)의 발효에 대응하지 못하기에 탄력성 있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이 비유는 ‘조경’의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유용하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분야가 조경이라는 기존 부대에 담기고, 조경은 국토 개발로 훼손된 경관을 가리는 역할을 부여받아 식재공사 위주의 사업을 주로 해 오면서 성장했다. 식재 위주의 조경을 산업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도로변에 즐비하던 ‘비닐하우스 조경’이었다. 지가 상승과 함께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비닐하우스 조경’은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생태계를 구축한 조경 산업이었다. 조경이라는 이름의 기의(이미지, 의미)가 사회 체계 내에서 비닐하우스 조경이 하는 일과 연계되어 성장하고 이미지화되어왔다.

#### 우리는 언제까지 조경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까

조경이 지금까지 적지 않은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이라는 이름이 외면받는 것은 번역이 서툴러서도, 어감이 안 좋아서도 아니다. 조경이라는 이름이 사회 체계 안에서 그렇게 필연화되었기 때문이다. 동시대의 대중들이, 의사결정자들이,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경가들이 읽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잉여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조경이 사회적 메시지를 제시하지는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조경이라는 이름이 (조경이) 하는 일이나 결과물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는 이름이 (조경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의 조경과 그들의 조경이 같아지기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다. 입버릇처럼 반복하고 있는 “조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그 지난한 과정을 대변한다. 조경 스스로 조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가. 자신이 인정받기 어려운 사회적 위치를 알고 뛰어든 조경 새내기들이 얼마나 될까. 조경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이름을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언어는 일단 정해지고 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언어는 창조성을 가진다. 새로운 생각이나 상황에 맞게 언어는 만들어진다. 생명과학대학, 생명환경과학대학 등은 모두 농과대학의 다른 이름이다. 시대 상황에 맞게 이름을 바꾼 경우다. 미디어, 바이오,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분야도 많다. 여러 조경가들은 자신을 조경건축가라고 소개한다. 그들은 조경가보다 조경건축가가 더 나은 전달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할 수 없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4) 조세환, 앞의 글.

## ‘조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 김정윤

Harvard GSD 조경학과 교수, PARKKIM 대표

“1970년대 초, 한국 조경의 성립과 함께 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로 선택된 조경이라는 이름이 조경(학)의 목적, 대상, 영역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며 조경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본 웨비나 기획 의도문 중에서

### landscape architecture와 '조경'은 왜 자주 의심받는가?

여러 국내외 조경 전문가들의 저작<sup>1)</sup>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름에 대한 불만과 의심은 우리 한국 조경전문인들만의 것은 아니다. 건축가인 찰스 왈드하임(Charles Waldheim)은 Harvard GSD의 조경학과(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학과장 시절 쓴 논문<sup>2)</sup>의 결론부에서 ‘landscape architect’가 두 단어의 조합인 것에서 오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프랑스어의 paysagiste에 가장 근접하는 landscapist로 바꾸면 어떤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심지어 처음으로 스스로를 landscape architect라고 칭하고, 그러면서부터 맨하튼 북부 리뉴얼 등 도시 스케일의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주도하기 시작했던 옴스테드 또한 “랜드스케이프라는 말도 별로, 아키텍처라는 말도 별로, 그 두개의 합성도 별로(Landscape is not a good word, Architecture is not; the combination is not. Gardening is worse)”<sup>3)</sup>라고 했더니 대체 문제가 뭔가 싶어서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우리가 다루고 싶어하는 일의 ‘스케일’ 그 자체가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일수록, 협업하는 각개 전문가들 모두가 자기의 전문성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항상 같이 일하게 되는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토목 등에 비해 나이도 어리고 규모도 작은 조경 분야는 리드하려면 더 많은 난관을 뚫어야 한다. 아마 옴스테드도 그랬을 것이고, 오피스박김도 그렇다. 하지만 옴스테드와 나의 차이가 있다면, 나는 이것을 내 직업의 공식 이름을 바꿈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경의 아버지’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 준 이 명칭에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직군(profession)과 전문인(professional)은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알렉스 크리거(Alex Krieger)는 미국의 이상주의(idealism)가 어떻게 도시 공간에 구현되었는지

1) 예를 들어, 우성백·배정환, “조경은 Landscape Architecture인가”,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6, 11-12. Charles Waldheim, “Introduction: Landscape as Architecture.”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 34(3), 2014, 187-91.  
<https://doi.org/10.1080/14601176.2014.893140>

2) Charles Waldheim, 위의 논문.

3) Victoria Post Ranney, ed., *The Papers of Frederick Law Olmsted, Vol.5. The California Frontier, 1863-1865*,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422.

를 다룬 책 『시티 온 어 힐 *City on a Hill*』에서, 미국의 도시화에 있어서 1세대 조경가(landscape architect)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옴스테드를 비롯한 19세기 중반부터의 미국 조경가들을 “행동에 있어서는 사회 변혁가, 정신에 있어서는 로맨티스트, 그리고 야망에 있어서는 유토피안들(social reformers in action, romantics in spirit, and utopians in ambition)”<sup>4)</sup>이었다고 묘사한다. 이들은 점점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는 도시인의 일상이 가져올 가까운 미래의 여러 문제를 예측하고, ‘자연의 도시화(Making Nature Urbane—크리거가 조경에 대해 서술한 장의 제목이기도 함)’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그를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그렇다면, 수목학을 배웠고, 도시를 배웠고, 1:10 스케일과 1:5000 스케일의 평면/단면을 모두 그릴 줄 알고, 어떤 경우에 토목 엔지니어를 부르고 어떤 경우에 수리 엔지니어를 부르지 않고, 간단한 건축 구조도 배웠고, 생태학의 기본을 알고, 경관을 대하는 인간의 행태를 배운 우리 전문 직군에 대한 현 사회의 요구와 기대는 무엇인가? 아니, 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양을 가진다면 우리를 뭐라 부르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이름을 가진 어떤 직업인도, 변화에 맞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 정의해야 하는가?

“서로들 조경이 ‘이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사실 조경의 매력은 정의할 수 없는 애매모호함과 정의로운 도전 의식에서 비롯되지요. 당신에게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은 무엇입니까?”라는 박윤진의 질문에 아드리안 회저(Adriaan Geuze)는 “첫 번째는 정원 예술(garden art), 두 번째는 조경 엔지니어링(landscape engineering)—물, 토양, 식물상 등을 다루는 자연공학—, 그리고 세 번째는 퍼블릭 스페이스 데코레이션(public space decoration)입니다”라고 대답한다.<sup>5)</sup>

회저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지만, 현재 오피스박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내가 GSD에서 진행 중인 수업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이 세 카테고리 중 하나, 혹은 두세 개 카테고리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굳이 하나로 정의하거나 부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뭐라고 불리는 것 자체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2001년의 박윤진이 비록 조경의 ‘매력’이라고 말했지만, 현 시점 한국의 조경 전문인에게는 이 애매함을 걷어내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전문성의 결여를 예술성 혹은 유연성이라고 포장하다가는, 지금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일들마저 힘들게 쟁취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설득하고 만족시켜야 할 발주처가 있고, 그 결과물이 사회적 요구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아티스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오히려 예술보다는 엔지니어링에 가까워져야 한다. (물론 여전히 결과물의 공간경험과 아름다움은 우리 전문성의 핵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관을 만든다’는 의미의 ‘조경’은 오히려 ‘건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landscape architecture보다 더 포괄적이고, 이 시대에 적합할 수 있다.

4) Alex Krieger, *City on a Hil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153.

5) 박윤진, 김정윤, “Personality: Conversation with Adriaan Geuze(1)~(2)”, 『환경과조경』 159, 160호, 2001년 7, 8월.

### ‘조경’을 대신할 새 이름을 찾을 필요가 있는가?

따라서 우리 직군을 외부에서 부르는 명칭으로서의 ‘조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본 논의는 이 시점 조경계에 진정 필요한 여러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즉, 본 웨비나 기획 의도문 중 한 문장을 차용하여 이렇게 묻고 싶다. “조경은 전문 분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은 “기후 변화 시대에의 공간설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심지어 리드하기 위해, 조경 전문인은 스페셜리스트여야 하는가 제네럴리스트여야 하는가?”

또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직을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하는가?”

특히 마지막 질문은 학교에 있으면서 동시에 매해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신입 디자이너들을 마주하게 되는 내가 가장 무게 있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만일 움스테드의 명함에 ‘landscape architect’ 대신 ‘a social reformer in action, romantic in spirit, and utopian in ambition’이라고 쓰여 있었다면 그의 프랙티스가 더 수월하고 그의 말년이 더 풍요로웠을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시대의 움스테드가 겪은 것과 다른 종류의 난관들을 뚫었어야 했을 것이다.

어떤 직업군이든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대의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기엔 사회는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한 직업군에 기대하는 외부로부터의 요구 또한 단편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러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한 ‘조경’이라는 이름은 기회일 수 있다. ‘조경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대한 다채로운 답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재능있는 2, 30대 조경전문인들이 이제껏 기성 프랙티스들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 내 이름은 알렉산더 라인하르트 폰 로엠그람 더 매그너스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어 그래, 조경아, 이름 때문에 고민이라고? 니가 찌파니까 니 이름도 찌파 같은 거지, 왜 이름 탓을 해. 알았어, 잠깐, 농담이야. 빠지지 마. 이제부터 형이 진지하게 상담해줄게. 네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이유가 있지. 너 원래 미국 출생이잖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니 이름을 너희 할아버지 옴스테드님이 지어준 건 알지?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도 지어놓고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진 않았대. 일단 아키텍처가 붙는 것이 무슨 아키텍처의 유사품 같잖아. 친구들이 자꾸 물어봤대. 아파트 건축, 목조 건축, 서양 건축, 빨간 건축처럼 건축의 한 종류냐고.

그런데, 너 원래 이름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아니었던 건 알고 있지? 원래 네 이름은 랜드스케이프 가드닝이었어. 근데 너희 할아버지는 그 이름이 너무 싫었던 거야. 물론 멋있는 정원사도 있었지. 너희 할아버지의 아버지였던 다우닝도 엄청 잘 나가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정원사셨지. 그러면 뭐해. 정원사라고 하면, 다들 진땀물 잡아주고 잔가지 쳐주는 밥 아저씨를 떠올리는데. 그래서 개명을 한 거야. 친척들이 난리가 났지. 왜 이름을 멋대로 바꾸냐고. 일설에 의하면 너희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인 켈버트 보가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일단 할아버지인 옴스테드가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한 거지. 어쨌든 친척 할머니 중 반 렌셀러라고 목소리 큰 분이 있었는데, 새 이름 엄청 싫어하셨대. 그래서 지금 이름이 낫다고 할아버지가 엄청 설득하셨다고 하더라고. 이름이 가드닝이면 평생 놀림 받는다고, 차라리 이름에 아키텍처가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서 하나 궁금해질 거야. 왜 하필 남의 이름인 아키텍처를 가져다 썼을까? 그래 너랑 친한 건축이. 개 이름이 아키텍처야. 개가 원래 너희 할아버지 친구 손자였거든. 원래 그 집 안도 별 볼일은 없었어. 할아버지는 석공예, 아버지는 목수였거든. 그런데 애가 커서 엄청 잘 나가는 거야. 부잣집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잘나가는 예술가들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옴스테드 할아버지도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지. 네가 어릴 때 맨날 형, 형 하면서 건축이 쫓아다녔잖아. 맨날 개 말투도 따라 하고, 똑같이 입고 다니고. 그런데, 따라 하다 보면 걸모습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아지고 싶거든.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위치까지 말이지. 이런 걸 상징적 동일시라고 해.

하지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지. 넌 건축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건축이가 진짜 무서운 애거든. 애가 뜨니까 석공이었던 개네 할아버지, 목수였던 아버지까지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 취급했거든. 그게 고급진 직업은 아니니까 좀 창피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 개네 할아버지랑 친했던 너희 집도 완전히 무시했어. 정원사나, 목수나, 석공이나 고상해 보이진 않았거든. 그런데 막상 너로서는 그게 안 되지. 건축이랑 똑같아지려니까 너의 근본을 부정해야 하고, 그렇다고 따라 하려는 걸 이제 그만두려니까 이름도 바꿔가면서 건축이

를 롤 모델로 살아온 너의 과거도 부정해야 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된 거지. 너는 지금까지 건축이의 욕망을 니 욕망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그 욕망이 니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너의 고유한 욕망은 없는 거지. 타인의 욕망을 욕망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게 히스테리아. 네 이름이 싫은 건 바로 전형적인 히스테리의 증상인 거지.

재미있는 건 네 한국 이름 조경이는 엄밀히 말해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의 번역어가 아니야. 뜻은 통하긴 하는데 사실은 다른 말이지. 번역어라면 경관 건축이 되어야 하잖아. 영어는 두 단어인데, 너 한국 이름이 한 단어인 것 봐도 이걸 완전히 다른 거지.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조경은 우리나라 전문 분야 이름 중에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이름이야. 일본에서는 조원, 중국에서는 원림이라고 하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은 일본도 엄청 싫어하고 일본 이름은 더더욱 싫어하는 거 잘 알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전문 분야의 이름들은 100년에 만든 새로운 일본어거든. 도시, 공간, 윤리, 사회, 민주, 지금 우리가 쓰는 전문용어는 죄다 서양어를 번역한 일본어인 거지. 건축만 하더라도 원래 일본에는 조가(造家)라고 했어. 그런데 바꿨어. 건축으로.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서양 번역어가 아니었으니까. 일종의 콤플렉스였거든. 일본이 한번 서양이랑 한번 붙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일본은 철저히 동양은 열등하고 서양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돼. 아예 일본을 서양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이 쓰던 말은 열등한 것이고 서양의 말은 우월하게 되어버려. 그래서 요즘의 일본 조경가들은 원래 자신들이 쓰던 조원이라는 이름 대신 서양 그대로의 란도스케-포(ランドスケ-ポ)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라고 했지? 맞아, 이것도 일종의 히스테리아.

그런데 히스테리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것은 없어.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문 분야의 이름들은 죄다 히스테리 증세를 수반하거든. 그것도 이중의 콤플렉스로 인한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나. 첫 번째는 서양의 이름을 욕망해야 하는 히스테리. 두 번째는 서양의 것을 욕망해야 하는 일본의 이름을 욕망해야 하는 히스테리. 그런데 조경은 영어 이름의 번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야. 완벽히 너의 고유한 이름이야. 그런데 웃긴 것은 뭔지 알아? 너는 너 혼자 콤플렉스가 없는 것이 또 콤플렉스가 되는 거야. 남들은 콤플렉스가 두 개나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아, 창피해. 나도 서양 이름 제대로 따라 하고 싶고, 멋있는 일본어 이름이면 좋겠는데 나만 내 이름이야. 그런데 막상 그 서양 이름을 보면 남의 이름을 따라 한 거야. 따라 해도 콤플렉스고, 안 따라 해도 콤플렉스고. 네가 생각해도 난감하지? 진짜, 어쩔티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지젝(Slavoj Žižek) 형이 한 말이 있어.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그냥 살어. 정 이름이 짜증 나서 못 살겠다면, 알렉산더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 더매그너스로 이름을 바꾸든가. 형이 7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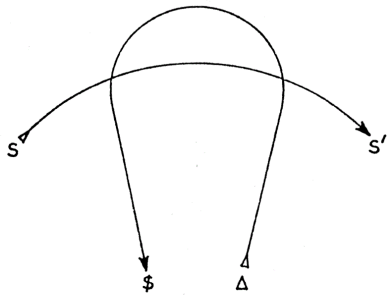
### [해설]

장난치지 말라고? 그럼, 7분이 넘었지만, 좀 제대로 설명해줄게. 잘 들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이름이 진짜 너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너는 호랑이인데 이름이 야옹이인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름과 본질의 문제가 아니거든. 저기 꼬리를 흔들고 있는 동물이 뭐지? 그치, 멍멍이야. 여기 노랑고 두툼하게 맛있게 생긴 것은 뭐지? 명란계란말이지. 그런데 넌 뭐지? 이 질문을 던지는 너는 멍멍이나 계란말이랑 달라. 재네는 그걸 부르는 이름이

기표고, 그 대상이 기의야. 그런데 넌 그렇게 기호화가 되지 않아. 너는 이름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지. 넌 주체야. 네가 주체라는 점이 네가 개랑 계란말이랑 다른 점이야. 그런데 주체가 뭐냐고? 위대하신 헤겔 형이 "주체는 세상과 본질 사이의 거리다"라고 말씀하셨지. 거리가 뭐지? 그치,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주체는 빈자리의 형식에 불과해. 이 비어있는 주체의 자리가 바로 너야.

보통 사람들은 대상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대상과 이름이 합쳐지면 기호가 된다고 생각해. 아니거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왜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나고 강박증이라는 게 있겠냐. 의미는 소급적으로 발생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게 그런 의미였다고 알게 되는 거라고. 지금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첫사랑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첫사랑인 거야. 더 쉽게 이야기해줄게. 엄마를 한번 생각해봐. 떠오르는 엄마의 의미가 있지? 5살 때 나 혼내던 우리 엄마, 19살 때 수험생 뒷바라지하던 우리 엄마, 22살 때 군대 갔을 때 우리 엄마. 지금 네가 생각하는 엄마의 의미는 지금의 네가 예전의 기표를 관통하면서 생기는 거야. 과거의 기억의 산물인 거지. 결국, 모든 의미는 사후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Graph I



라캉(Jacques Lacan) 형님이 에크리에서 그렸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볼게. 가로지르는 S는 이름이야. 기표지. 이름은 그냥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어떤 상징을 거치기 전의 주체 Δ이 기표를 관통해. 소급적으로 말이야. Δ이 기표 S를 관통하는 그 지점에서 의미가 발생해. Δ가 관통한 기표는 뭔가 달라져. 동일한 S인데, 의미가 만들어지고 다른 S'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 과정을 거쳐서 규정되지 않았던 주체 이전의 주체인 Δ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서 비로소 주체 \$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주체는 빗금이 쳐져 있

어. 뭔가 결여된 주체라는 뜻이야. 빗금이 지워진 완벽한 주체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체인 이상 결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결여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잃어버려야 할 무언가야.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증상을 수반해.

그러니까 네 이름이 후져서 너의 진짜 의미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오히려 네가 과거의 이름 S를 소급하면서, 지금의 너 때문에 멸절한 이름 S'가 후져지는 거야. 생각해봐. 조경의 이름이 원래부터 창렬했다면, 그때 미쳤다고 그 이름 썼겠냐? 그러면 어떻게 이름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그건 주체의 조건이기 때문이야. 완벽한 주체는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어. 무엇인가를 결여해야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살아가라는 가야. 네 이름이 알렉산더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 더 매그너스가 되어도 결국 넌 열등감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축이라고 자기 이름이 다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줄 알아? 개도 정신적으로 고민 많아. 너랑은 좀 다른 문제이지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길은 열등감을 너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해 줄게. 그냥 즐겨. 너의 열등감을. 그 징후를.\*

\* 이 글과 관련된 상세한 이론적 분석과 참고문헌들은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영민, “건축의 얼굴”, 『건축평단』 12호, 2017, 12-36.



## 건축의 경계에서 조경을 묻다

### 김정은

월간 「SPACE」 편집장

학부에서 건축을 대학원에서 조경을 전공하고 건축매체와 조경매체 모두에서 일을 했다. 분야를 오고가다 보니, 조경매체에 있을 때는 건축 출신으로, 건축매체에 다시 오니 조경 출신으로 불린다. 그리하여 양 분야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타자의 시선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환경과조경」에서 일하던 초창기 조금 의아했던 점은, 의외로 ‘조경가’란 단어가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중매체에서도 조경가란 단어는 잘 쓰이지 않았다. 물론 건축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일간지 등의 대중매체에서 건축전문가, 건축설계사 등의 단어가 쓰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조경가 스스로도 조경가라 칭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

### 건축인의 시선

회사의 동료들에게 ‘조경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 가볍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 질문에 기자들은, “규모는 다양하겠지만, 식물을 다루는” 또는 “기후환경/친환경 등” 시스템적 접근을 하는 업역이라고 답을 한다. 작게는 화분부터 마당/정원, 오픈스페이스, 공원, (대규모) 놀이터, 워터프론트 등의 작업이 떠오른다. 막내기자는 건축학과 학생 때는 조경이란 공원처럼 도시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으나 요즘에는 ‘플랜테리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실내에서도 식물이 많이 보여서, 그럼 저것도 조경에 속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역시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구나 싶으면서도 이는 학계와 업계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자들 외의 직원들은 (예상대로) 조경을 가드닝/식재 혹은 정원과 동일시하는 편이었고, ‘조경가’란 단어를 낯설게 느끼기도 했다.

건축전문지를 만들며 결국 자주 접하게 되는 조경은 건축물의 외부공간이다. 종종 건축가들은 조경가가 화룡정점처럼 적재적소에 식재를 해 건축가가 의도한 혹은 의도치 않았던 장면을 완성하게 되는 데 감탄을 표하기도 한다. 혹은 새로 완공된 건축물의 사진촬영 시점을 논할 때, 수목이 어느 정도 있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소위 ‘사진발’을 위한 것이지만 건축의 완성의 의미 역시 조경이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건축가들에게 조경가의 콘셉트를 듣는 일은 흔하지 않다. 모두 잘 알다시피, 조경은 건축물 시공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계획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경가가 주도적으로 개념을 펼치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부공간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가들도 있으니, 업역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인접 분야 전문가들이, 혹은 대중들이 조경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은 정도는 다르지만 인접 분야 모두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사전적 의미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가깝게 맞닿아 있다는 전제하에, ‘건축(가)’, ‘조경(가)’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조경’의 사전적 의미는 “경치를 아름답게 꾸밈”(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이다. 박승진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핵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함께 제시된 용례 “이번에 새로 만든 공원은 조경에 유달리 신경을 썼다”를 보면, 식재에 머물러 있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은 상황이 다른가? 국어사전은 ‘건축’을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축가’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건축 계획, 건축 설계, 구조 계획, 공사 감리 따위의 일을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건축가들 역시 이 사전적 의미가 건축의 문화적인 의미를 충분히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건축자재비가 드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도 설계비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건축설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은 조경이나 건축이나 마찬가지로 겪는 일일 것이다.

적절한 예인지 조금 고민스럽지만, 얼마 전 「SPACE」에서 진행한 ‘도시설계’에 관한 좌담에서 한 참여자는 “(도시설계에 관해) 관리형 지식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좋게 보면 도시설계 외연의 확장이고 지식생산자의 다변화이다. 안 좋게 보자면 아무도 전통적인 의미의 도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은데 모두가 도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씩씩한 양면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쩐지 ‘누구나 조경(에 해당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는 말과 닮아 있지 않은가?

### 대중과의 접점

조경의 폭넓은 스펙트럼 가운데 대중의 관심이 ‘정원’에 쏠리듯이, 수많은 건축물 가운데 사람들이 관심을 표하는 것들은 주택과 인테리어, 카페 등이다. 조경 필드에서 ‘정원이 조경의 전부가 아닌데’하고 안타까워했듯이, 건축전문지를 만들면서도 저변 확대라는 명목으로 좀 더 많은 주택을, 소위 인스타그램머블한 카페를 수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건축전문지 역시 대중의 관심도 필요한 상업지이다.) 그럼에도 대중의 이해가 깊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가 아닌 것도 싶다.

‘따라라라라~’하는 BGM과 함께 진행되던 TV 프로그램 ‘러브하우스’를 기억하는가. 이제는 클리셰가 된 일반인들의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다. 2000년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었을 때 건축계에서는 건축이 본질보다는 예능으로 소비된 이 프로그램에 고운 눈길만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러브하우스가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좀 더 건축적인 관점에서 집을 소개하는 EBS ‘건축탐구 집’과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명건축에서 점심을’처럼, 드라마와 다큐를 접목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는 일본의 문화와 환경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적 관심을 모으는 책을 써내는 스타 저자들도 한둘 생겨나고, ‘오픈하우스 서울’처럼 평소에 가보기 어려웠던 좋은 건축물들을 개방하는 축제도 생겨나는 등, ‘예쁜 집’에서 출발한 관심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 물론 거칠게 요약한 것이지만 대중의 관심사에서 출발해 이해를 높여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꾸준히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 웨비나를 준비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함께 조경을 공부한 J와 나눈 대화를 옮겨본다.

나: 사람들이 문화적 의미를 담은 건축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거나, 경관을 만드는 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나,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조경가나 건축가나 꾸준히 좋은 작품 만들면서 대중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말야,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 (웃음)

J: 가장 어려운 질문은 본질에 대한 물음이 아닐까? 그러니 그 업을 하는 사람들도 평생 스스로에게 물으며 끊임없이 작업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경이, 건축이 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

## 조경이라는 이름의 학과 업의 이인삼각 경기

### 이유직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조경의 이름

- landscape에 대한 혼란스러운 번역
  - landscape planning : 조경계획, 경관계획, 환경생태계획(landschaftsplanung)
- 조경에 대한 편견(?)을 가져온 학과 명칭 :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 생태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 landscape architecture에 대한 몰이해, 도발, 혹은 대안
  - 2001~2013년 사이에 등장했던 ‘랜즈케이프 건축’이라는 용어: 예를 들어, 김광현 등(2001), 랜즈케이프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ublicity in Landscape Architecture)
- ‘랜즈케이프’의 사용
  - 「조원잡지(造園雜誌)」에서 「랜즈케이프 연구(ランドスケープ研究)」로  
日本造園学会誌 - 1925년 「造園学雑誌」 창간, 1927년까지 발간 / 1934년 「造園雜誌」 창간 / 1994년 「ランドスケープ研究: 日本造園学会誌」로 개명
  - *Landscape Journal*  
CELA(Council of Educators in Landscape Architecture)의 공식 저널 , 1982년 창간



- 조경학이라는 학문의 발전 과정 속에서 생긴 현상, landscape가 어원적으로 함축하는 의미의 스펙트럼이 넓음에도 일부 기인
- 조경학을 구성하는 부분 영역들의 개별 약진 및 독립화로 조경학 본연의 내용적 층위가 열어짐. 이는 학문의 자기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함. 한국 현대 조경학 태동기의 시대적 상황이 가져온 산물

## 조경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한국조경학회 비전플랜위원회 조사, 2021)

### 1) 여전히 따뜻한 일반인들의 인식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의 대답으로 '조경은 도시의 숨구멍을 만드는 것', '자연 카페', '힐링하는 안식처를 만들어 주는 곳', '내 삶의 배경' 등이 나옴. 일반적으로 조경 전문가들이 응답한 종합과학예술, 외부 환경 조성, 휴식처 등의 반응에 비해 감성적이고 현대 도시에서 (필수불가결한)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분야로 인식
- 조경의 미래에 관해서, 일반인(82%)과 학생(76%)은 조경 전문가(47%)보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일반적 업계 현실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변화 속에서 미래 가능성을 밝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 2) 확장된 활동영역, 한국 현대조경의 활동 영역

- 많은 교육 영역이 조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결국 조경의 범용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가능성과 한계의 근거임을 다시 확인하게 함
- 최근 신입교수진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개별 연구실의 명칭 또한 이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됨(예: 경관정보및과학연구실)
- '산/관/학/연',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 전통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필요에 맞춘 세분화된 활동이 통합적으로 나타남(예: 벽면녹화시스템, 생태계 복원, 경관 및 조경관리 등). 이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수동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1) 의사결정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 조경의 정체성/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추측되며, 2) 녹색 인프라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은 높으나 실행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지난 세기 거대 담론 중심이 아니라 모두 현장(site, 대상물)에 집중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세분화된 영역과 산업들이 통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것을 읽을 수 있음

### 3)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경의 대응

- 조경이 적용될 수 있는 도시 콘텐츠는 다양하며, 그린 뉴딜 정책과 상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탄소중립 시대, 도시민의 보건과 안전,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문명 위기 등과 같은 시대적 여젠다들을 조경을 통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건축 및 교통 분야에서도 친환경 인증시스템 및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SITES 단지개발, 스마트 모빌리티와 연계한 자전거도로 및 그린 스트리트 구축 등은 조경 분야와 맥락을 같이함
- 팬데믹과 관련하여 도시민의 건강과 웰빙에 관한 키워드는 그린 인프라 및 공원녹지와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사회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은 도시재생이나 도시재건 그리고 생물다양성 복원과 같은 생태복원 사업들의 미래에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C 융합을 기본으로 한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조경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임

-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조경 관련 산업 전 분야와 융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 세대와 함께 소통하여 조경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 미래는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관련 전략 수립에 조경의 역할과 영역 확보가 중요
  - ▷ 미래의 조경은 지속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적 자본,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통한 환경, 사회, 경제라는 본질과 윤리, 공정,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

#### 4) 조경학과 출신 부산시 공무원과의 대화

- 조경 분야에 국을 설립한다면: 녹지국 - 조경과, 산림과, 공원과
- 조경정책과 경관정책을 비교한다면:
  - 조경: 대지안의 조경, 작은 녹지공간의 설계, 시공, 감독
  - 경관 시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조경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 법적 기반 미미, 녹지, 숲, 공원에 비해 제도적 기반 미비
  - 국토부: 공원 / 환경부: 자연공원 / 산림청: 가로수, 녹지, 도시숲, 수목원, 정원

#### 앞으로의 조경

- 이론과 실무의 균형: 조경은 현장 중심의 학문과 산업으로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위해 '분석-계획-설계-시공-운영-관리'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 미래 변화 대응: 조경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구현, 생태계 보전, 재해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며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 축적과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
-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 조경인은 경관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환경 창출을 목표로 협력하며,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를 다한다.
- 개방적 자세와 문화적 기여: 조경은 개방적인 자세로 다양한 분야와 교류하고 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실무의 고도화를 통해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며 국가 정책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한다.
- 인재 교육: 조경은 다양한 환경·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조경인의 위상을 높이고 조경의 지평을 넓히도록 노력한다.

- 한 가지 추가할 점: 「한국조경학회지」 명칭 변경 → 랜드스케이프 연구(Landscape Journal)

[참고 자료 : 한국조경학회 비전플랜위원회 조사, 2021]

1) 설문조사 : 내가 생각하는 조경은 OO이다 (박재민, 이상민)

- 방법 : 설문조사 (객관식 및 주관식 병행, 구글 설문지 이용)
- 대상 : 전문가, 일반인, 조경학과 학생 등 3그룹으로 구분
- 시기 : 2021년 7월 파일럿 테스트, 2021년 8월 1일 ~ 11월 30일
- 참여 : 총 350명, 전문가 73명, 일반인 50명, 조경학과 학생 227명

## 자신이 생각하는 조경을 정의해 주세요. (조경은 OO이다.)

### 일반인(50)

조경은 예술이다.  
 조경은 도시의 숨구멍을 만드는 것이다.  
 조경은 도시와 자연의 연결  
 조경은 자연카페이다.  
 힐링하며 머리를 식혀주는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곳  
 조경은 눈의 환기이다.  
 내 삶의 배경  
 조경은 삶의 질을 올려주는 요소이다.  
 조경은 인간과 동식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학문이다.  
 공존  
 조경은 정리이다  
 집 앞 또는 공공 기관에 있는 나무나 기타 식물들을 관리하는 것

### 학생(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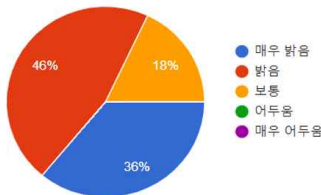
조경은 공원이다  
 조경은 외부환경을 고민하는 총체적인 일이다.  
 조경은 도심의 균형이다  
 자연과 인간사이의 다리 서비스업이다  
 조경은 감각하는 공간이다.  
 일상속의 예술  
 모든 환경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분야  
 있어 보려면 무조건 필요한 것이다  
 디자인 작품이다  
 (좋은) 조경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조경은 복잡한 자연과 인간활동을 통해 토지에 남긴 표지다  
 조경은 봉사이다

### 전문가(73)

조경은 매트릭스이다  
 종합과학예술(하도 주입 당해서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조경은 모든 생명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존재 및 수단이다.  
 조경은 행태를 담는 그릇이다.  
 조경은 마음의 휴식처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익스테리아:건축물 외부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분야의 건설행위  
 조경은 " 자연을 입히는 작업 " 이다  
 조경은 평면건축이다.  
 조경은 유명무실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조경은 건물 콘크리트를 뺀 모든 것이다.  
 더 나은 삶의 연결고리  
 대지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조경은 행태를 담는 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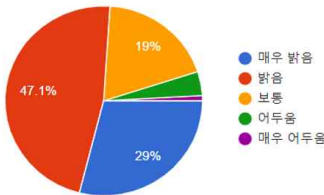
## 다가 올 미래, 조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 일반인(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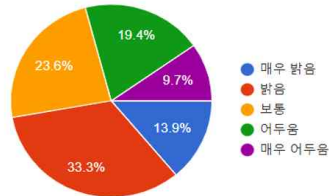
밝음 이상 (82%)  
 보통 (18%)  
 어두움 이하 (0%)

### 학생(227)



밝음 이상 (76.1%)  
 보통 (19%)  
 어두움 이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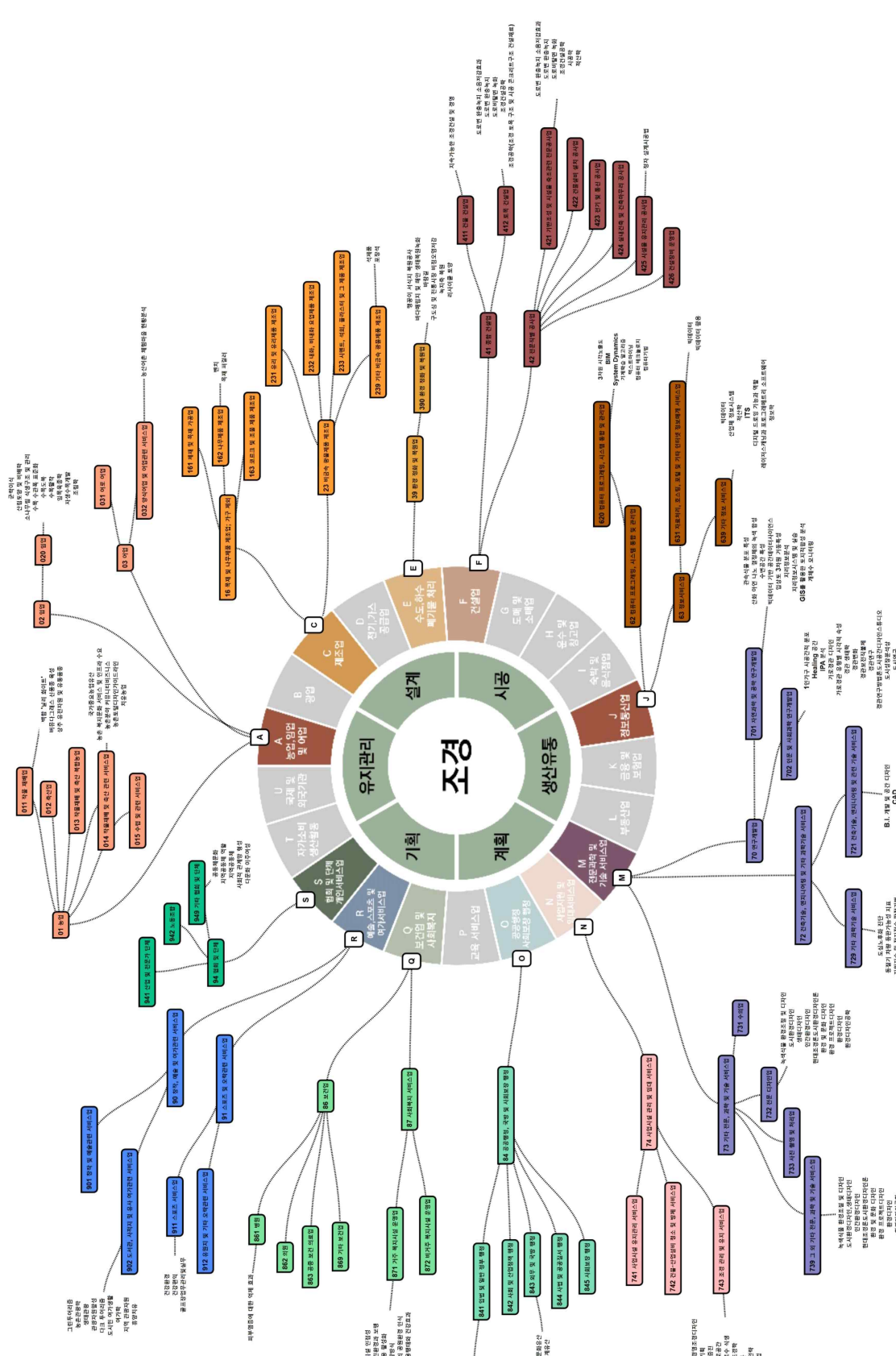
### 전문가(73)



밝음 이상 (47.2%)  
 보통 (23.6%)  
 어두움 이하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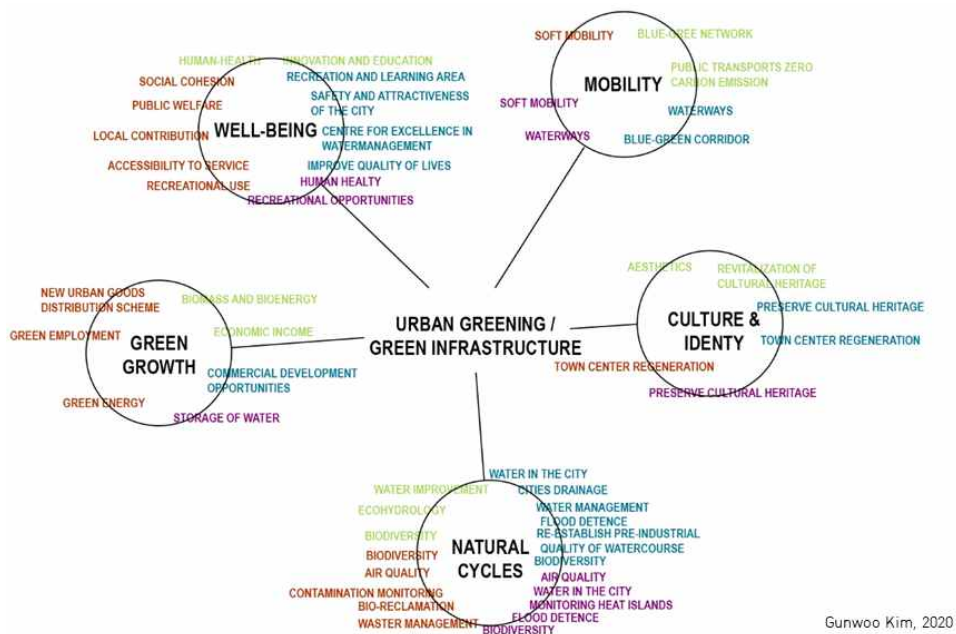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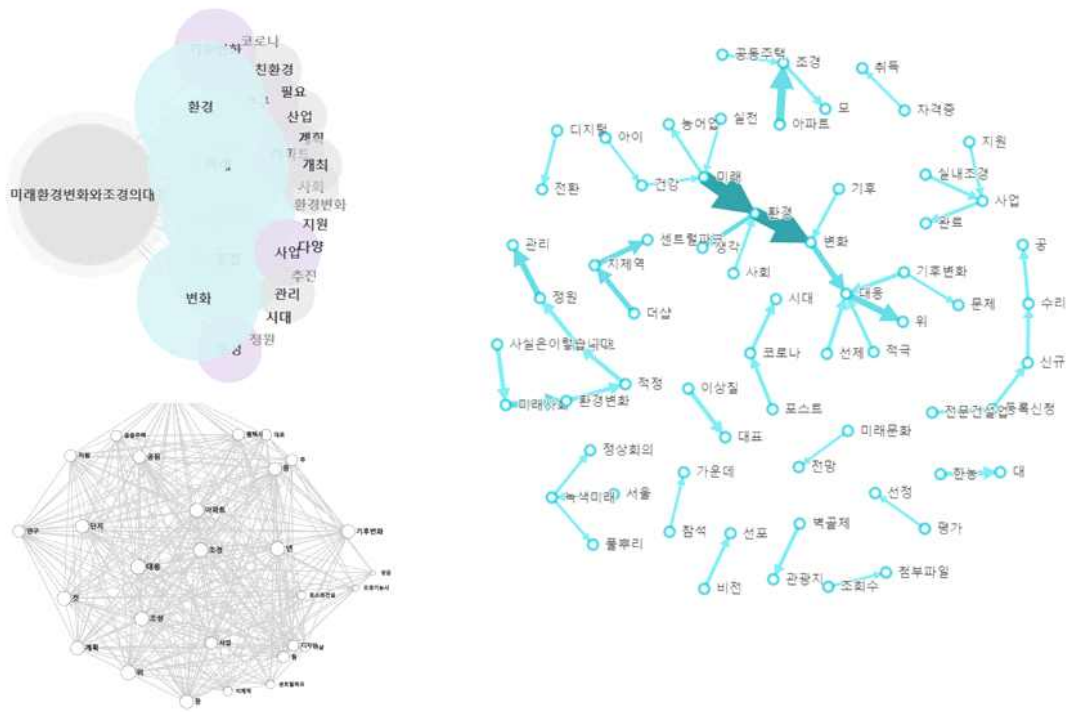
### 3) 미래 환경의 변화와 조경의 대응 (전진형, 김건우)

- 연구 문제 : 일상생활에서의 조경은 어떤 의미인가?
- 빅데이터 정보수집-정보처리-정보추출-정보분석 과정을 통해 텍스트 마이닝 진행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키워드 : '미래 환경', '조경', '웰빙', '기후변화'로 설정
- 빅데이터 수집 기간 :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년
- 네이버, 다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검색엔진 및 소셜미디어에서 some trend와 big kinds, textom을 활용하여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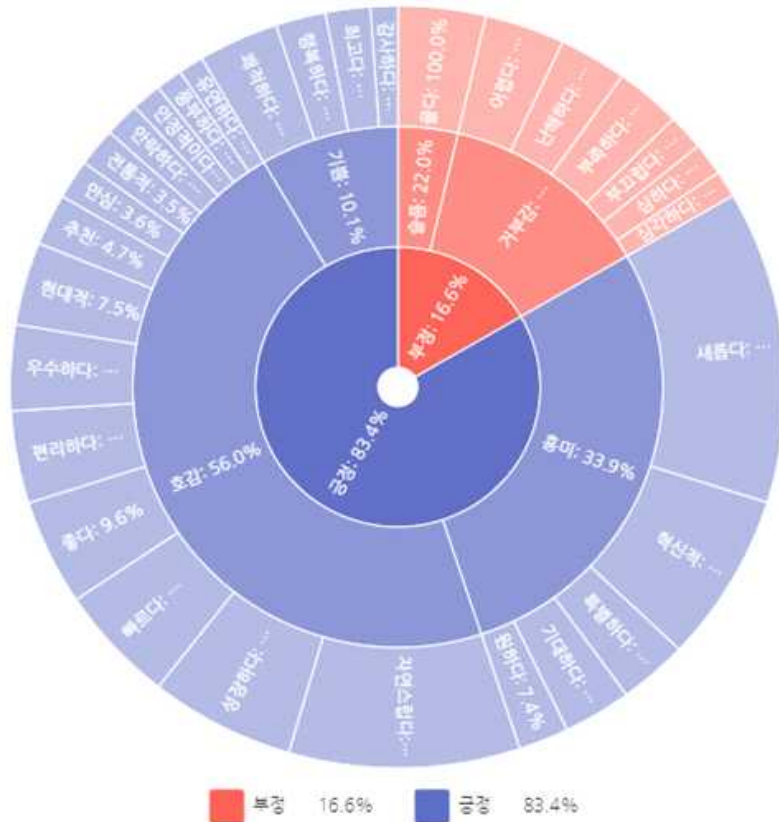


###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환경' 과 '조경' 의 만족도 비교분석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출처: <https://www.textom.co.kr/home/main/main.php>



출처: <https://www.textom.co.kr/home/main/main.php>